창녕군 화왕산과 부곡온천

- ‘불의 뫼 의 불기운을 통해‘ 가마솥 에 물 데워 -

정월 대보름날의 달집 태우기는 풍년과액막이의기원이담겨있는우리민족의 오래된 민속이다. 달집 태우기는 보름날동산에달이떠오를때이루어지는데, 새해첫만월이지닌생명력과생산력, 풍요로움에다한해의소망을기원하는의식으로서타오르는불길이액운을쫓아준다고 믿었으며, 불길이 치솟을 때 소원과 함께한해의풍년을빌었다.

이 민속 행사는 정월 대보름에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말흘리와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일대에 있는 화왕산(火旺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의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는 그 규모나 내용 면에 있어서 전국 제일의 대보름 행사라고할수있다.

이곳화왕산정상부의 10리억새평원에서 이루어지는 불태우기 행사는 대개 3년 주기로벌어지고있는데, 2003년음력정월대보름에도그행사가이루어져서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참가하였고, 그 광경이 TV를통해전국적으로방영되었다.

먼저, 화혼(火魂) 행사라하여높이13m의 달집이 세워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각종소망과무병장수를비는기원문을써서 걸어둔다. 민속놀이및농악행사등다채로운행사가이루어지고나면달집이불태워지고, 이어서5만 6,000평에 이르는 거대한억새의산정이불바다를이루면서불태우기행사가절정을이루게된다.

높이 756.6m의 화왕산은 창녕군 군립공원으로지정된창녕고을의진산이자명산으로서 예로부터‘불의 뫼’로 불러왔다고 한다. 그런데 불의뫼라는 이름은 뫼부리의‘부리’처럼산을뜻하는옛말이지만, 그근원을거슬러올라가보면밝음을뜻하고, 지금의‘화왕산’이라는 이름과 서로 통하고있다.

‘불의 뫼’라는 이름은 불뫼 > 부리뫼 > 불의뫼로되었을것이며, 여기서 '불'은 밝음을뜻하는광명이세(光明理世)로서박달의‘박’, 비사벌의‘벌’, 불거뉘의‘불’처럼우리말과땅이름곳곳에남아있다.

> 우리나라훈몽(訓蒙) 책을보면산을다만산봉우리라하고방언으로‘부리’라고한다. …날카로운칼날과같은봉우리를봉(峰)이라하는데, 오늘날그뜻을모두 부리’라고한다.
> 정약용<아언각비>

이화왕산은 우리나라5대 억새군락지로알려진곳이다. 억새는우리유행가가사가운데‘아, 으악새슬피우니가을인가요’에 나오는 바로 그 으악새로서 습지나 냇가등물가에서자라나는갈대와구분하고 있다. 화왕산은 그 이름대로 불기운이 왕성한 산, 거대한 억새 태우기의 장관이 벌어지는산이니참으로그이름이명불허전(名不虛傳)임을알수있다.

이 화왕산의 불을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창녕군에 있는 부곡온천(釜谷溫泉)을 그냥지나칠수없게된다. 이곳은창녕군 부곡면(釜谷面) 거문리의 원래 온정리(溫井里)라고 부르던 곳이다. 그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온정리’라는 이름이 이미 온천이 솟아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부곡면의‘부곡’은 즉‘가마골’로서가마솥을뜻하고있다.

말하자면화왕산의왕성한불기운을통하여 가마솥에 물을 데우고 있으니, 국내에서가장높은수온(섭씨 74도)의온천이 솟아나오고있는셈이다. 물과불이이곳 창녕에서기묘한조화를이루면서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는것이다.

김기빈
건설교통부중앙지명위원회위원
한국땅이름학회부회장